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10월까지 운영

정읍시가 화려한 조명과 빛 줄기 공연을 선보이는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를 오는 10월까지 주 5일 가동한다.

운영 일정은 평일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저녁 8시와 9시에 맞춰 두 차례 음악분수를 켜준다.

방문객이 물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8시, 저녁 9시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운영 횟수를 늘린다.

특히 야간 분수 공연 시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빛 줄기 공연이 어우러져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안의 지도를 바꿀 대형 인프라 사업부터 주민 체감형 공모사업까지 총 61건의 사업이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국가예산·공모 대응 보고회... 61개 핵심사업 국가예산·공모사업 확보 총력 체제 가동

부안군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최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국·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2028년 국가예산 및 2026년 공모사업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에 대응하고,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신규사업의 부처 반영 가능성과 대응 논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안의 지도를 바꿀 대형 인프라 사업부터 주민 체감형 공모사업까지 총 61건의 사업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중 국가예산 사업은 15건, 공모사업은 46건이다.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부안 백산산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 정비사업 △가력항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는 △ESG 메디컬 상생지원센터 조성사업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출포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매창 문화광장 조성사업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핵심 공모사업으로 꼽히는 'ESG 메디컬 상생지원센터 조성사

업'은 출판물 블루카본 생태자원과 원광대학교 한방 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체류형 생태치유 거점 조성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ESG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의 예산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해 부처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원주=염태복 기자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 정립·세부 추진 과제 논의

정읍시가 지난 21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반드시 세워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장산 관광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실무진 등 13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수행 기관이 △과업 개요



△관광 환경 여건 분석 △기본 구상과 사업 발굴 방향 △향후 추진 계획을 차례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시는 11월 안으로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부안군은 제31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 변산면 격포항 일원에서 대규모 해안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가 공동 주관했으며, 부안수협과 유관기관, 어업인,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두 개 조로 나뉘어 격포항 주변 해안가에 방치된 페플라스트, 페어망, 부표,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으며,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약 2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해 사립과 바다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전북지방환경청과 홍수취약지구 점검

정읍천 안전점검·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관급자재·장비 활용 협조 건의

정읍시가 최근 전북지방환경청과 정읍천 일대 홍수 취약지구의 안전을 점검하고,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잦은 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현연국 정읍시 도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하천인 정읍천을 비롯해 물줄기가 합쳐지는 흑암천 일대의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두 기관은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비상 연락망, 주민 대피 계획 등 전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두루 점검했다.

김호은 청장은 "최근 기습적인 국지



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홍수 취약지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이 끝난 뒤에는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관내 하천 정비 사업 추진에 감사드리다"며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정읍에서 생산한 관급 자재와 지역 건설 장비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 장비의 참여를 늘리고 관급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안전환경 조성 우수사례 호평...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 기여

고창군이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우수한 대응 역량과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재난관리 유공 포상으로, 5월 방재의 날을 맞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수여한다. 고창군은 2024·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풍수해·폭염·한파 등 계절별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취약지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안전문화 캠페인 확대, 안전신문고 활성화, 민·관 합동훈련 실시 등 국민 참여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특히,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높여왔고, 여름철 폭염 대비 양심냉장고 운영 등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한편 고창군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증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료

정읍시가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과 용산저수지 일대에서 19개 유관 기관 소속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와 저수지 붕괴를 가정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집중호우가 내린 상황을 가정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기관 사이의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토론과 현장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연결해 실제 상황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대행인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토론 훈련이 열렸다.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협업 부서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제8098부대 3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난 상황 접수부터 초기 대응, 대책본부 가동 여부 결정, 현장 연락관 파견, 단계별 상황 판단 회의 등

을 차례로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대책본부와 현장 사이의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과 용산저수지 일원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 권한대행인 손연국 도시안전국장이 현장 훈련을 지휘했다. 정읍시를 포함해 순창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자율방재단 등 19개 기관 소속 300여 명이 투입됐다.

현장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교육생이 매몰되고 용산저수지 붕괴 징후가 나타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돌발 상황이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자체 소방대의 초기 대응을 시작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꾸렸다. 이어 인명 구조, 부상자 이송, 합동 상황 판단 회의, 언론 설명회(브리핑),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 전반을 살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지원 특화사업 선정

고창군로컬JOB센터

고창군로컬JOB센터가 '2026년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지원 추가 특화사업(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 주관)'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관의 구직자 유입,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 지역 기업 판로 개척을 이루는 일자리 선순환

종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 확보한 예산은 고창군 일자리 환경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입, 정착, 성장 등 3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이달하순계 순차적으로 참여 대상자(기업, 구직자, 입사자)들의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